

2026.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식지

Summer

모아상담소 여름호

사 단 법 인 한 국 아 동 발 달 연 구 소



한국아동발달연구소



Contents

1.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 - TCI검사 기반 교직원집단상담
2. 사례공유 -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아동(자기조절력)
3. 책소개 - 부모의 말투는 아이의 감정이 된다 (저자: 우치다 겐지)
4.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 교직원집단상담 (LG유플러스용산 정은빈 주임교사)
5. 전문가 칼럼 - 박은숙소장 (파주아이언어발달센터)
6. 연구소 소식 -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대면교육
7. 연구소 프로그램 비용 안내
8. 연구소 위치 및 연락처

[TCI검사 기반 교직원집단상담] 프로그램

한국아동발달연구소에서는 TCI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CI(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검사는 기질 및 성격검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주제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반응 성향입니다. 기질은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입니다. 반면 성격은 개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를 포함하는 자기개념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되며, 감정반응으로서 기질보다 더 후기에 진화한 고차원적인 인지과정을 반영합니다.

TCI검사는 4가지 기질차원(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3가지 성격차원(자율성, 연대감, 자기조원)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검사결과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을 탐색해 봅니다. 또한 교직원들 간의 기질과 성격특성을 알아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직원집단상담을 통해 '나'를 찾고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도록 합니다.



TCI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질'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며, 기질반응을 바꾸기 위한 불필요한 투쟁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을 잘 이해함으로써 성숙을 향한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동을 키운다." 건강한 마음과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TCI 검사 기반 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

1. TCI 검사로 기질 및 성격 이해하기
2. TCI 결과해석
3. TCI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 타인이해
4. 교직원집단상담



사례공유 –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아동”(영유아의 자기조절력 이야기)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지현

이번 호에는 아동관찰, 교사코칭을 진행하며 만난 아동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사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내용의 일부 각색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자신의 요구를 울음과 떼쓰기로 표현하는 아동

강00(2세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울음, 떼쓰기, 몸을 뒤로 젖치거나 바닥에 눕는 행동을 보인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모습은 있으나,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놀이 중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물건을 던지거나 주변의 교구를 흠뜨리는 행동을 보인다. 이동하거나 모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식사시간에 원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바닥에 눕거나 음식을 뱉어버리는 행동을 보인다.

아동관찰 (상황1) 자유놀이 시간에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강00은 책을 읽어주는 교사의 옆에 있다. 매트에 누워서 계속 책을 읽어주기를 원하여 교사도 함께 누워 책을 읽어준다. 친구들이 자리에 함께 누워서 책을 읽기를 원하자 교사는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강00은 자신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책을 읽다가, 별떡 일어나 교사의 곁에서 친구들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한다.





(상황2) 횡단보도를 건너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리더하는 교사가 전체 아동들을 통솔하여 이끌면서 지켜야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동한다. 공원에 도착하자 강00은 공원주변을 돌면서 뛰어다닌다. 교사의 반응을 살피며 잡기놀이가 되어버린다. 돌아오는 길 주변에 궁금한 것이 많은지 자꾸 대형을 이탈한다.

(상황3) 강00이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친구가 뒤에서 지나가다 강00을 밀쳐진다. 강00은 울먹이며 교사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밀었어요."라고 말한다. 교사는 "괜찮아 얼른 들어가자"라고 하며 달래며 교실로 들어간다.

< 연구소 전문가의 소견 >

위 사례의 아동이 우리반에 있다면, 교사들의 보육 난이도는 높아질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도와줄텐데, 사전징조도 없고, 맥락상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난감합니다. 제가 아동관찰을 가면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관찰자가 있으면 아이들도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관찰자가 나가면 바로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2세 전후의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익힙니다. 양육자와의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인식하며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고, 신뢰로운 성인양육자와의 수용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감정조절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력이 잘 발달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고 돌보기 어려운 아동이 됩니다.

자기조절력은 가정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괜찮아."하고 내버려둔다면 아동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어 떼쟁이, 버릇없는 아이, 까다로운 아이, 어른을 조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감정조절에 대한 아동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세 : 주양육자를 통해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를 적용하면서 감정을 수동적 상태에서 점차 능동적 형태로 변화시키며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2세 : 좌절에 대한 참을성도 나타나며, 이러한 능력은 이후 급속히 증가한다. 타인의 정서를 이전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 3세 : 다른 사람 앞에서 부정적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만족을 지연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행동이 이전보다 능숙해진다. 사례의 강00은 감정조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00이 낯선사람, 낯선상황에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입니다. 관찰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제공해 주어 강00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 교사와 원장님께 드리는 Tip >

(1) 아동의 자기조절력향상을 위해 충분히 수용받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1)에서 교사가 강00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여러차례 반복해서 책을 읽어주었기에 친구들이 자신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2) “빠르게 & 느리게” 놀이를 하며 조절력을 연습합니다.

(상황2)에서 강00은 잡기놀이를 하고 싶어 교사가 자신을 따라오게 눈을 맞추습니다. 교사는 눈으로 잡기놀이를 해 주어도 됩니다. 너무 흥분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멈춰 숨을 천천히 쉬거나, 천천히 숫자를 세며 흥분도를 낮춰줍니다.

(3) 감정을 읽어주어 아동의 불편함을 교사가 인식하고 있음을 전달해 주세요

(상황3)에서 강00은 친구가 밀어서 속상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교사는 얼른 교실로 들어가려다 보니 강00의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동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을 읽어주는 것 만으로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교사가 나의 불편함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이 됩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Tip >

아동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해 가정의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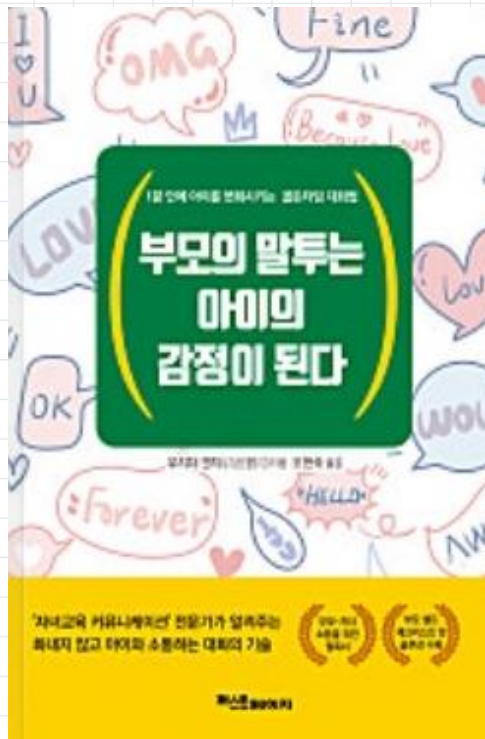
엄마의 손을 잡고 걷지 못하는 아동은 어린이집 산책시간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방과 거실을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친구들을 피하지 않고 부딪치며 뛰어다닙니다. 엄마의 무릎에 앉아 가만히 책을 읽지 못하는 아동은 대집단활동에서 교사에게 집중하지 못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기, 실내에서 뛰지 않기, 엄마와 책읽기와 같이 사소한 일상이 아이의 자기조절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1) 아이와 눈을 맞추며 긍정적인 상호작용 하기.
- (2) 아이의 관심사를 인정해 주기
- (3) 함께 손잡고 걷기
- (4)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최소한) 알려주기



책.소.개

BOOK / 부모의 말투는 아이의 감정이 된다



저자 / 우치다 겐지. 오현숙 옮김

‘말투연구소; 대표이사

<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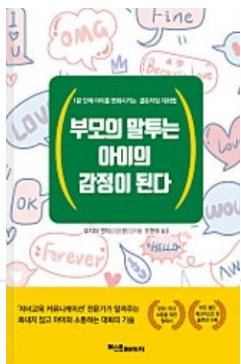
듣는 법, 말하는 법>

< 단 20초! 눈 깜빡할 새의 설득기술 > 등

엄마는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령형으로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명령형이 아니라 아이에게 권유하듯이
말해보면 아이의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BOOK : 부모의 말투는 아이의 감정이 된다 (1분 안에 아이를 변화시키는 골든타임 대화법)



부모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투는 아이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게 만든다. 말투는 생활에서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또한, 잔소리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고도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부모의 말투에 있다. 아이와의 바른 대화법으로 가정의 화목과 아이의 미래를 성장 시킬 수 있다.

저자는 부모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야단치고 시키는 대로 따르게 하려 했음을 깨닫고, 부모의 말투와 사고방식을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1분은 바쁜 부모가 낼 수 있는 시간이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의식해야 할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1분 안에 부모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의 비결이 이 책 곳곳에 담겨 있다.

1. 아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표현 탓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못해?” “제대로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야!” 부모가 하는 말을 아이가 듣지 않을 때 이렇게 아이를 나무라는 부모가 있다.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를 탓하기 전에 부모의 표현력이나 아이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 아이에게 해서는 안되는 4가지 말 >

첫째,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는 말 “~해”라는 명령형 말투

둘째, 칭찬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말 “대단해” “훌륭해”라는 과잉칭찬

셋째, 그릇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말 “~하면 ~해줄게”라는 조건제시

넷째, 아이의 마음을 닫게하는 말 “됐으니까”라고 자르는 말



2. 말하고 싶은 것은 1분 안에 전달하라

어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0분정도이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다. 아이와의 대화에서 최적의 시간은 1분이다. 이 1분안에 간략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대화법을 알아보자

<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3가지 전달방법 >

첫째,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바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예) 아이가 아는 말을 사용한다. / 구체적인 예를들어 설명한다. / 설명 안에 아이를 등장시킨다. / 대화문을 포함시킨다.

둘째, 지시할 때는 명확하게 전달한다.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애매한 표현보다는 명확한 지시를 한다. 예) 똑바로 앉아(X) 앞을 보고 앉아(O)

셋째, '단계적 화법'으로 차근차근 이해시킨다.

당장해야 할 일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려 초조함에 매일 정신없이 아이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급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기만하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방치해버리면 아이는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아이가 되기 쉽다.

3.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부모의 말투

< '전달하는 힘'은 '듣는 힘'으로부터 >

첫째, 아이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둘째, 아이는 부모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건강한 가치관을 길러주자)

셋째, '지금' 안된다면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하자

넷째, 아이의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듣는 힘'(아이의 속마음을 상상하여 대신하여 대답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때로는 침묵하여 기다리는 것이 유용한 전달법이다. / 들을 때는 아동의 기분이 되어보자)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 교직원집단상담 (교직원 TCI기질 및 성격검사 기반)

“ 나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 ”

[LG유플러스 용산 어린이집]



정은빈 주임교사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이하며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교직원 대상 TCI 검사 교육은 바쁜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검사지를 작성하고 결과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이 가득하면 어쩌지?'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아동발달연구소 강지현 소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걱정은 이내 안도와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질과 성격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성격이 어떻게 저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교육은 주임교사로서 동료 교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우리가 모여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더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아이들을 향한 더 깊은 애정과 포용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는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따뜻하고 단단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LGU+용산 어린이집 박선희 원장님과, 열정적으로 강의 해주시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주신 한국아동발달연구소 강지현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 말보다 먼저 자라는 것



박은숙 소장 (파주아이언어심리발달센터)

요즘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5개월, 20개월, 36개월.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다가도, 부모님들은 마음 한편의 작은 불편함을 안고 찾아옵니다.

“아직 말을 못해요.”

“포인팅을 안 해요.”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 손만 끌고 가요.”

“외계어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울면 너무 오래 울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물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단순히 ‘말이 늦다’는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사람과 얼마나 연결되고 있을까?

언어는 입에서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고, 함께 웃고, 도움을 청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일찍 상담실을 찾게 되었을까요.

예전보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발달을 더 일찍 살피고 작은 신호도 빠르게 알아차리게 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엄마와 아빠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침이면 부모는 출근하고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만나 밥을 먹고, 씻기고,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잠들 시간이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아이와 얼굴을 마주 보고 천천히 기다리고 주고받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영상도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하나를 아이의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사람과 주고받는 시간이 충분한가'**입니다.

저는 언어가 늦은 어린 아이를 만나면 단어의 개수만 보지는 않습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15개월 무렵이라면 필요한 것을 가리키는지, 엄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지, 이름을 불렀을 때 바라보는지를 살펴봅니다.

20개월 전후에는 엄마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 하려는지, 간단한 말을 이해하는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엄마와 함께 나누려 하는지를 봅니다. 36개월 무렵에는 단어의 수뿐 아니라 엄마와 말을 주고받는지, 질문하고 대답하는지, 자신의 경험이나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동차 말해봐. 무슨 색이야?”라고 계속 묻기보다 엄마가 옆에서 “우와, 간다!”, “엄마 차도 같이 갈까?”, “쿵!” 하며 아이의 놀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이가 엄마를 한번 바라봅니다.

엄마의 행동을 기다립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습니다.

다시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와 엄마 사이에 상호성, 즉 주고받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조절'**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아직 자신의 마음을 혼자 다루는 힘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오래 울거나, 몸을 던지거나, 때로는 친구를 물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만 울어", "진정해"라는 말보다 엄마와 함께 다시 편안해지는 경험입니다. 엄마의 차분함을 빌려 마음을 가라앉혀 본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는 조금씩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절되고, 연결되고, 주고받는 경험 속에서 언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면이 사람과의 시간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보게 두기보다 때로는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화면에서 본 것을 실제 놀이로 이어가 보세요.

무엇보다 화면을 보여주지 않은 시간을 세기보다, 오늘 아이와 얼마나 많이 마주 보고 반응을 주고받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 10분, 아이와 이렇게 놀아보세요

특별한 장난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하나를 골라 10분만 함께해 보세요.

아이의 행동을 먼저 따라 해주세요. 자동차를 굴리면 같이 굴리고, 블록을 쌓으면 옆에서 같이 쌓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나를 한번 바라보면 웃어주고, 무언가 표현하려 할 때 바로 대신해주기보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몇 번이나 서로 주고 받았느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봐"를 한 번 줄이고, 아이를 기다려주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말보다 먼저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함께 조절하고, 서로 주고받는 힘입니다.

아이의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이 닿는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 연구소 소식 ◆

상반기 자격과정 – 【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 대면교육 진행
4~7월 24시간의 비대면교육을 마치고, 7월 자격시험과 6시간의 대면교육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2026. 07. 09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2026. 07. 14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2026. 07. 16
인제 교육장 - 동해분과

【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 민간자격 등록

교육부의 심의 결과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민간자격 등록이 결정되었습니다.
30시간의 자격과정 교육과 자격시험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2026. 07. 21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부산교육 2026. 07. 23

프로그램 비용안내

〈 2026연구소 프로그램 비용 안내 〉

대상	프로그램명		회원 비용
어린이집	영유아 관찰 프로그램		1인 175,000원 (60분)
	영유아 반관찰 프로그램		1개반 275,000원 (90분)
	개입 관련 프로그램		1회 300,000원 (120분)
부모	부모상담		100,000원
	부모교육		400,000원
교직원	나를 찾아가는 여행	MBTI검사 기반	400,000원
		엘리스의 신념검사 활용	400,000원
	집단교사코칭 (주제중심)		400,000원
	TCI검사 기반 교직원집단상담		400,000원
	교사-영유아 애착 증진 프로그램		400,000원
	교사상담		60,000원
심리검사	STS 기질검사		22,000원
	PAT-2 부모양육태도검사		22,000원
	K-CDI 아동발달검사		22,000원
자격증 과정	영유아부모상담심리전문가 과정		500,000원
	발달심리평가사 과정		400,000원



1.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홈페이지: kcdlab.or.kr



2. 연구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7. 2층
모아맘보육재단 내



3. 연구소 MAIL / 연락처

kcdlab@daum.net

02-6338-1011



Thank You

Have a happy day

연구소 소식은 2026년도 ‘가을호’에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6. 여름호

사단법인한국아동발달연구소

발행인: 강지현 / 편집인: 강지혜 / 발행일: 2026년 8월 31일